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한 기록

7.12 fri. 19:30

2013 ONE DAY Festival

65 PLACE

<2013 원데이 페스티벌>은 클래식, 재즈, 국악, 실험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 290여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콘서트를 펼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국 38개 시·군 65개 장소에서 열렸다. 본 페스티벌은 서울 연희동 가정집에서 시작된 피아니스트 박창수의 더하우스콘서트가 극장판 하우스콘서트로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인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기초문화를 다지기 위한 작업으로써 개최되었다. 17개의 문화예술회관(지자체 운영 소극장 포함)을 비롯하여 민간운영극장, 미술관, 학교, 군부대, 가정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9천 4백 여 명의 관객들과 대한민국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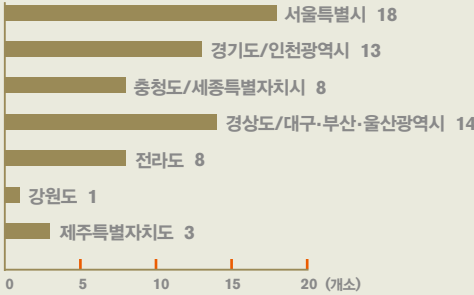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 전국 65개 공간
주 최 : 더하우스콘서트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최공간 성격별 분포

문화예술회관	17
(지자체 운영 소극장 포함)	
소공연장	12
(민간운영)	
대안공간	36
- 가정집	8
- 종교기관	5
- 학교	3
- 군부대	1
- 기타	19
(미술관, 카페, 보육원, 기차역사 등)	

단위 : 개소

개최공간 지역별 분포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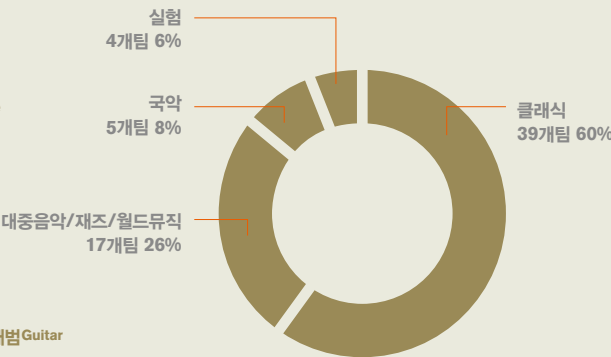
Place
강북문화예술회관(서울 강북구) *
가본곳(서울 광진구)
골든에이지(서울 마포구)
국제명상아카데미AOMA(서울 광진구)
김영조의 집(서울 용산구)
대안공간 문(서울 영등포구)
마리아칼라스홀(서울 강남구)
명지고등학교(서울 서대문구)
반줄(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58(서울 종로구)
세상에서제일작은한평극장(서울 종로구)
아틀리에 플라뇌르(서울 영등포구)
ART.C(서울 강남구)
영등포문화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서울 영등포구)
요기가 표현갤러리(서울 마포구)
올하우스(서울 강남구)
홍대 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과천시민회관(경기 과천시) *
계양문화회관(인천 계양구) *
광탄성당(경기 파주시)
국립암센터(경기 고양시)
김정욱의 집(경기 안성시)
늘푸름교회(인천 부평구)
전원예술가 무세종의 집-蘇逢(경기 고양시)
박상일의 집(경기 양평군)
보명사(경기 용인시)
약천사(경기 파주시)
양지성당(경기 용인시)
리코디스트 염은초의 집(경기 용인시)
정미령의 집(경기 안성시)
당진문예의전당(충남 당진시) *
음성문화예술회관(충북 음성군) *
청양문화예술회관(충남 청양군) *
깊은산속 웅달샘(충북 충주시)
능강속대문화공간(충북 제천시)
세도초등학교(충남 부여군)
충북문화관 북카페(충북 청주시)
한솔중학교 체육관(세종시)
경남문화예술회관(경남 진주시) *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대구 북구) *
예주문화예술회관(경북 영덕군) *
울주문화예술회관(울산 울주군) *
윤이상기념공원(경남 통영시) *
함안문화예술회관(경남 함안군) *
해운대문화회관(부산 해운대구) *
구미역(경북 구미시)
김주연의 집(경남 김해시)
카페 사람들이(대구 동구)
다별자연학교(경남 함양군)
상주보육원(경북 상주시)
아트팩토리 청춘(대구 중구)
해군9전단(경남 창원시)
김제문화예술회관(전북 김제시) *
익산습리문화예술회관(전북 익산시) *
장성문화예술회관(전남 장성군) *
대담미술관(전남 담양군)
사랑의광장(전북 남원시)
전주한옥생활체험관(전북 전주시)
정애자의 집(전북 정읍시)
창작지원센터 제2호(전북 전주시)
작은공연장 단(강원 강릉시) *
카페세바(제주 제주시)
본태박물관(제주 서귀포시)
제주스테이 비우다(제주 서귀포시)

* 문화예술회관

Artist

김예지, 이민정Piano
승승사교클럽
이보경Violin, 이재찬Piano
서민정Violin, 이수정Cello, 박소연Piano
소리공간-느루
마르한Vocal, Passion Flower, 회기동 단편선, Missing Lucille
강웅 Guitar, 교회안Piano, 김혜미Vocal
김희숙Flute, 이성우Classic Guitar
주연선Cello, 문정재Piano
윤은자, 김유정, 권중연, 정효진거문고, 강대현북
차혜리, 박민정, 김포근Toy Piano
Quartet Griot
찰리정Guitar, 도승은Vocal
이규성Baritone, 허정필Soprano, 진성은Hang Drum, 이선영Piano, 허재범Guitar
홍경섭 재즈 트리오
강태환Alto Saxophone
김유미Violin, 노인경Cello, 나정혜Piano
프리포먼스80 Vocals Flashmob
2 BASS
솔리스초Accapella
서울기타파르텟
이효주Piano
배장홀Guitar, 강운영Violin
DUOfor
무세종Performance, 신지수거문고/Toy Piano, 김성윤Cello, 송향숙Piano, Luis GarciaLaptop
구윤정, 황소원Piano
신날새해귀, 정겨울Piano
송정아가아귀, 정재우대금, 정겨울해금, 최영진타악
이지연의 12인조 재즈 오케스트라
염은초Recorder
Ensemble Bar-Pool
이경선Violin, 조수현Piano
신현필 & NU-STREAM Band
박운우 재즈 트리오
이정란Cello, 박진우Piano
Chorda Bella String Quartet
SNU Saxophone Quartet
Bellus String Quartet
김책 재즈 트리오
우주히피
나M Vocal, 이현주Piano, 안원석Double Bass
김가은 재즈 트리오
Brass Market
장성Piano
전민경Oboe, 유재연Piano
황신혜밴드
Forte Brass Quintet
장은영Soprano, 박상진Bass, 임소정Piano
최인Guitar
마혜령해금, 김태우대금/소금, 성숙진가아귀
Bearsi String Quartet
이혜연Violin, 한주형Piano
김유은Violin, 유세형Piano
가영Viola, 히로 히다메Piano
정록기Baritone, 최사랑Piano
가우사이
Verius String Quartet
안드레이 재즈 트리오
이승원Viola, 남윤정Piano
정재원Piano
발청유 아나스타시우 컨템포러리 앙상블 & PROJECT 샘=숨
메이세컨Piano, 허희정Violin, 조준성Percussion, 이동찬Guitar
임수연Piano
카메라타 제주
문용휘Cello

연주장르 분포



294 ARTIST

65개 팀, 294명의 연주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1시간의 콘서트를 가졌다. 이경선(Violin), 성민제(Double Bass), 김가은(Jazz Piano), 강태환(Alto Saxophone) 등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월드뮤직, 국악, 실험음악에서 다양한 연주팀이 참여하여 지역 관객들과 만났다.



9,391 AUDIENCE

9,391명의 관객들은 하우스콘서트 방식으로 공연을 즐겼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모두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으며 일부 공간을 제외한 미술관, 학교 등에서도 최대한 관객들이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를 최소화시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관객들에게 공연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INTERVIEW

막전막후 幕前幕後

2012년,
전국 21개 도시에서
일주일애 100개의 공연이 열렸다.
그리고 2013년 7월,
이번에는 단 하루 같은 시간에
65개의 공연을 동시에 열겠다고 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수많은 시선들.
호기심과 의구심,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를 안은 채로 2013년 7월 12일,
65개의 공연이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기대를 보다 강한 확신으로,
의구심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꾸었던,
특별한 하루의 기억을
박창수 대표의 목소리를 따라
되짚어본다.

幕前

마룻바닥 음악회, 하우스콘서트

2002년 7월 12일, 자택을 개조해 처음 시작하셨던 ‘하우스콘서트’가 올해로 벌써 11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하우스콘서트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11년을 이어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 무대는 경제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나 관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는 옳은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그것을 계속 실행해 나갈 뿐입니다.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관객들이 “행복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길 때라고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하우스콘서트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희생을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마주했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우스콘서트에서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발전적인 문화 운동이라는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 합니다만 개인의 일이 공공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조차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인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지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 당신이 희생하세요’라는 느낌이 들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우스콘서트는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화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즉 기초문화를 다지는 것이 하우스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11년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연장이라는 대상으로 진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의 극장판 시대가 열리다

2012년 하우스콘서트 10주년을 맞아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00개의 공연을 여는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 극장판의 시작은 이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이후로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하우스콘서트를 10여 년 동안 만들다 보니, 한국에는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은 반면 공연 무대와 새로운 관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전국에 중극장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400여 개나 있지만 공연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매칭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10주년이 되던 해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21개 도시의 23개 극장에서 100개의 공연이 열렸던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하우스콘서트의 형식을 극장에 그대로 가져와 관객들을 객석 대신 무대 위에 방석을 이용해 앉도록 했던 방법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지역 공연장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는 관객들이 없다’고 했던 공연장 관계자들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극장도, 관객들의 의식도 흔들어놓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어떤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2013 원데이 페스티벌>은 일주일의 축제였던 2012년과는 달리 단 하루만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앞서 이야기 했던 흔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작년 페스티벌 이후로 2013년 1월부터는 전국의 20여 개 극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회부터 많게는 연간 16회를 진행하는 극장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극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과 같이 기폭제 역할을 할 페스티벌이 필요했지요. 2012년이 일주일 동안 100개의 공연이었다면 이번에는 단 하루, 같은 시간에 동시에 100개는 어떨까.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콘서트는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화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즉 기초문화를 다지는 것이

하우스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11년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연장이라는 대상으로

진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일 100개의 공연을 계획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65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실제로 65개의 공연에 그치게 되었지만 이중 실제 공연장은 17개뿐입니다. 비어 있는 극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17개 밖에 안된 것은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전반적으로 기초문화가 다져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안공간을 더 추가해서 100개의 공연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기초문화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공연장의 참여가 미비하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5개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65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앞서 ‘기초문화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 먼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각적이고 직접적이라는 특성으로 대중과 영합하는 것이 대중예술인 반면, 예술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순수예술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둘 다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예술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5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수예술, 즉 기초문화가 튼튼히 받쳐줄 때 그 다음 세대의 대중예술이 발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기초문화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대중예술만 있을 뿐, 근간이 되는 기초문화는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중예술을 좇는 95%의 사람들에게 나머지 5%의 기초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창조해내야 하는 예술가들은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예술가를 직업화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가 하는 일은 이러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누군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그것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많은 걸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나까요.

<2013 원데이 페스티벌> 프로그램북 ‘박창수를 만나다’ 발매
글: 하우스콘서트 수석 매니저 강선애

幕後

원데이 페스티벌, 그 특별했던 하루의 기억

페스티벌을 관객, 아티스트, 공연장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 일단 하루에 65개나 되는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올려질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호기심과 우려 등 궁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형식의 페스티벌에 있어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었고, 실천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페스티벌보다 발전된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주일간 1만 명이 참여했다면 이번엔 하루에 1만 명이 참여했으니까요. 관객도 아티스트도 연주된 공간들에게도 하나의 응집된 의미를 만들어준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데이 페스티벌>은 문예회관 외에도 일반 가정집이나 군부대, 학교 등 다양한 성격의 공간에서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공연 준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이번에 함께한 공간들이 공연장이라는 일관된 시스템이었다면 일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워낙 여러 형태의 공간이 모여 있다 보니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르게 대처해야만 했던 점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이 또한 결국 좋은 경험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대안공간들이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었음에도 의외로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듯 조금의 마찰을 보인 곳도 있긴 했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에서 문화예술회관보다 대안공간의 비중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하우스콘서트'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안공간과 같은) 작은 공간이 알맞다' 라는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게 된 건 아닐까요?

-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전국의 그토록 많은 극장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공연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역마다 잠재되어 있는 관객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말이지요. 현 시점에서 극장이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금 하우스콘서트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연주자들도, 공연장들도 그리고 지역 관객들도 이제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관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너무 훌륭한 성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직도 저는 현재의 공연장들이 기본적으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안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연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입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공연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상상하게 합니다만,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문예진흥기금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조달했습니다. 일종의 제작두레를 시도하신 셈인데요.

-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우스콘서트 그리고 전국 프로젝트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 경제 논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작년이나 올해 페스티벌도 얼마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거기에 기여하 참여해 모든 아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관객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분위기를, 그리고 연주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연장은

관객과 연주자들을 기쁘게 공연장이라는 그릇에 담아줘야 하고요. 이와 같은 토대만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그 공통분모를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65개 공간에 파견된 자원봉사자 '하코너'의 운영 또한 제작두레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하우스콘서트를 믿고 참여한 65개 공간에 배치된 하코너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수많은 공간 중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콘서트의 작업에 공감하고 기쁘게 참여한 분들이죠. 현장에서 전방위로 뛰어다녀야 했고, 공연 모니터링까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참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우스콘서트에서는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고 공연 하나를 통째로 맡기신 건가요?' 라고요. 반대로 하우스콘서트를 어떻게 믿고 참여하신 거냐고 웃으며 답을 했지만, 결국 하코너 운영에서도 하우스콘서트에 대한 믿음,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행보는 구상 중'이라 밝히셨습니다. 하우스콘서트에서 계획했던 연간 전국 5,000회 공연, 1,000회 공연의 목표 역시 현재 진행형인가요?

- 물론입니다. 이를 두고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 시선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저는 연간 5,000회의 공연을 만든다는 것 역시 단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한 일이고 자력으로라도 5, 6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습니다. 간혹 순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몇 년이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욕심 또한

개인도 그리고 사회도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또 가치 있는 일에

힘이 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

그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는

선진화되지 못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늦기 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력단체들과 협조를 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한다는 것이 결국 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미 하우스콘서트는 제 개인의 것에서 벗어나 공공의 가치가 되고 있기에 그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리고 사회도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또 그 일에 힘이 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 그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는 선진화되지 못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늦기 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도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의 바람이기보다는 더 나은 가치의 상생을 위해서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흔히 사람들은 정치 경제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겠지요. 결국 기초문화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 없이는 어떠한 색도 채워나갈 수 없습니다.

정리 : 하우스콘서트 수석 매니저 강선애





독특한 관람 방식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 전북 익산시 박세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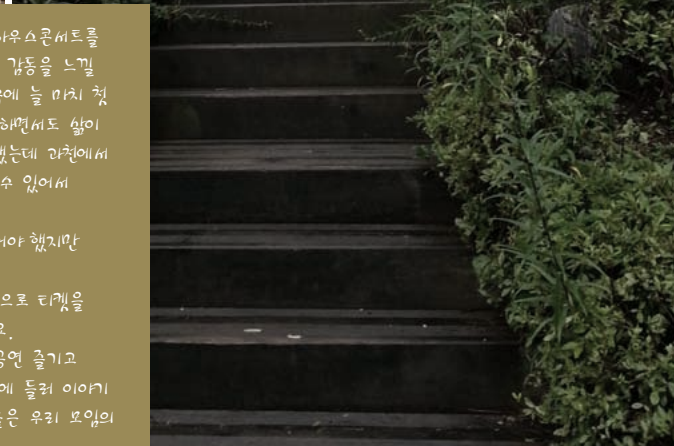


음악은 잘 모르지만 하우스콘서트를
만나면서 음악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미치겠
사랑을 그리듯 그리워하면서도 삶이
빠빠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라전에서
하우스콘서트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들어야 했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매진으로 티켓을
구하지 못할 뻔 했지요.
친구들과 함께 좋은 공연 즐기고
늦은 시간이지만 카페에 들러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임의
품격이 달라진 거죠.
하우스콘서트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공연으로 라전에 또 오세요.
- 경기 라천시 박길혜 님



가족 같은 느낌.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경기 안양시 홍인하 님

지방에는 공연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주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 백두현 님



생애 첫번째 하루였다.
힘든 하루 저녁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느낌!
- 경남 김해시 양지현 님

신나는 락이나 유명한 대중음악이
아니어도 가슴이 뻥!
풀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 경북 영덕군 남연주 님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동시대발적으로
열린 원데이 페스티벌. 인천지역
개양구 솔리스츠 공연을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개양구는 우리가 사는 연수동에서
거의 끝과 끝입니다. 이로부터
교실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살짝
슬렁입니다. 꺾어보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가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떨림입니다.
그것도 열정시대를 사는 세대들의
공간에서는 때론 강한 전기 자극보다
더 감칠맛 스파크입니다.
공연은 객석이 아닌 무대에서 함께
주인공이 되는 대동체 같은 느낌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공연
이벤트라. 추억의 팝송, 클래식, 우리
가작 임진강, 솔리스츠의 코러스로
함께 부른 구슬픈 노래 씬집 아가,
즐거운 뱃노래, 게스처로 몸을 담은
NMC, 노래와 노래 사이를 채우는
그들의 민담, 무대 위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맘껏 즐거웠던
공연,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기록을 살다가 오늘을
떠올리고 '뭘했' 웃음 한번 나오면
그만. 오늘은 딱 그만큼의 행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들만의 현재성을
선물로 준 이번 행사 감사합니다.
솔리스츠 그리고 하곤.
- 인천 조경희 님

지난 몇 개월 새막을 들렸다.
그리고 오늘,
잠시 오아시스를 만났다.
- 부산 함경의 님



MEDIA REPORT



보도결과 종합

구분	매체수
중앙일간지	10
지역일간지	48
통신사/인터넷 뉴스	37
주간지/월간지	5
방송	9
총 계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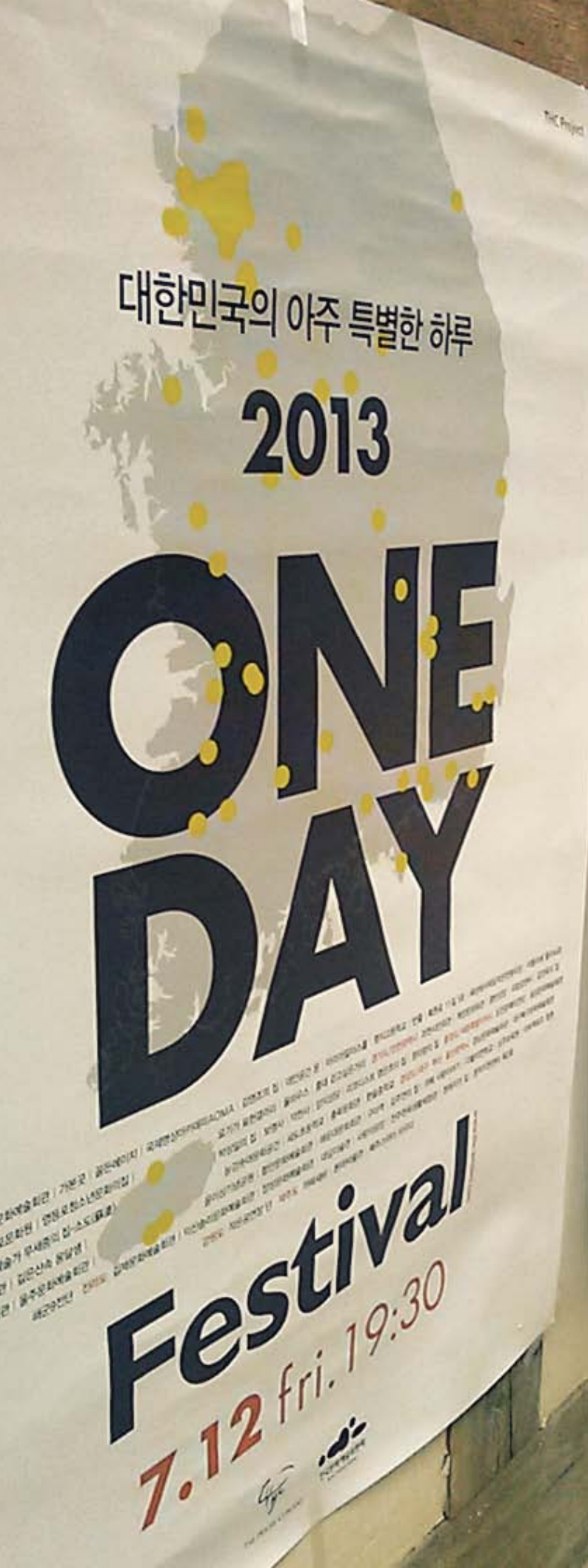
중앙 일간지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문화일보	2013. 06. 26	같은 시간, 다른 공간... 65개 팀 '별난 무대'
조선일보	2013. 06. 27	65개 공연장 통시 습격 작전
파이낸셜뉴스	2013. 07. 01	하루 한날, 65개 무대서 동시다발 콘서트
서울신문	2013. 07. 05	'올림' 생생한 집에서, 자연의 품에서 즐기는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코리아헤럴드	2013. 07. 11	House Concert to feature 65 performances
헤럴드경제	2013. 07. 12	12일 대담미술관 음악회
조선일보	2013. 07. 12	주말 이 공연, 이유있는 추천
조선일보	2013. 07. 15	2500만원(문화예술위 지원금)으로 1만명 모은 '하우스콘서트'
한겨레신문	2013. 07. 15	연주자 숏소리까지 생생... '찾아가는' 하우스콘서트
문화일보	2013. 07. 16	온몸으로 느낀 더블베이스 선율

지역 일간지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광주일보	2013. 05. 22	하루이 나주에 오지 못하는 이유
울산매일신문	2013. 06. 25	울주문화관, 지역 유입 '원데이 페스티벌' 참여
제민일보	2013. 06. 25	"특별한 하루" 동시다발 콘서트
경남매일	2013. 06. 26	오보에 · 피아노 선율 '더 가까이'
창원일보	2013. 06. 27	전국 65개 공연장에서 동시진행되는 '더하우스콘서트'... 통영시민과 함께
담양곡성타임스	2013. 07. 01	대담미술관, 더 하우스 콘서트 '원 데이 페스티벌' 개최
금강일보	2013. 07. 01	대전만 빠진... 문화소의 시대유감
한산신문	2013. 07. 02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통영도?
중도일보	2013. 07. 02	'박윤우 재즈트리오' 청양 공연
충청일보	2013. 07. 02	하우스콘서트 청양 상륙
대전일보	2013. 07. 02	2013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
충청투데이	2013. 07. 03	청양서 '하우스콘서트' 12일 개최
충청경제	2013. 07. 03	One Day Festival '박윤우 페즈트리오' 청양공연
대전일보	2013. 07. 03	박윤우 12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재즈트리오 공연
대구신문	2013. 07. 04	관객과 연주자 거리 '제로'
충청매일	2013. 07. 04	관객과 호흡하는 '하우스콘서트' 청양서 열려
시민일보	2013. 07. 06	무더위 썩 날리는 '하우스 콘서트'
매일일보	2013. 07. 06	강북구, 12일 하우스 콘서트 개최
경남도민일보	2013. 07. 08	객석 무대 경계 허물고 연주자, 관객 하나로
매일신문	2013. 07. 08	무대 바닥 앉아 추억의 음악을...
전국매일신문	2013. 07. 08	강북구 '하우스 콘서트' 12일에
매일신문	2013. 07. 09	12일 전국 65곳서 하우스콘서트
충청일보	2013. 07. 09	관객과 무대가 하나되는 음악연주회
경남일보	2013. 07. 09	블랙박스 극장에서 만나는 감성 선율
경남도민일보	2013. 07. 09	오보에와 피아노의 선율 속으로... 하우스콘서트 함안 공연
대전일보	2013. 07. 09	음성문화예술회관, 신현필&NU STREAM Band 공연
충북일보	2013. 07. 09	음성문화예술회관, 신현필&NU STREAM Band 공연
충청매일	2013. 07. 09	무대와 객석 하나되는 올림
충청일보	2013. 07. 10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밤 음악회
충청일보	2013. 07. 10	음성문화회관, 신현필&NU STREAM Band 공연
중부매일	2013. 07. 10	전국 65곳서 '원 데이 페스티벌' 동시 개최
대전일보	2013. 07. 10	전국 음악축제 음성에서 함께해요
충북일보	2013. 07. 10	2013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영남일보	2013. 07. 10	숏소리까지 고스란하... 매력 보이스에 취해볼까
불교공뉴스	2013. 07. 10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충청타임즈	2013. 07. 10	충북문화관서 '원데이페스티벌'
중앙일보	2013. 07. 10	충북문화관 북카페에서 One Day Festival 공연
전북일보	2013. 07. 11	연주자와 관객 경계를 허문다
전북도민일보	2013. 07. 11	미디어아트와 프리뮤직의 새로운 만남
강원일보	2013. 07. 11	'메이세컨' 하우스콘서트
경남신문	2013. 07. 11	무대 안으로 들어선 객석... 눈앞서 느끼는 감동
강원도민일보	2013. 07. 11	메이세컨과 뉴에이지 피아노 여행
전국매일신문	2013. 07. 11	내일 하우스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
울산매일	2013. 07. 12	무대·객석 하나...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전국매일신문	2013. 07. 12	오늘 메이세컨 하우스콘서트
구미일보	2013. 07. 12	구미역,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
전북일보	2013. 07. 14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 하우스콘서트
전북일보	2013. 08. 01	박창수씨 '하우스콘서트' 운영 원칙

통신사/인터넷 뉴스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연합뉴스	2013. 04. 28	[서울] 하우스콘서트, 이번엔 하루 100개 공연
	2013. 07. 04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11~13일 하우스 콘서트
	2013. 07. 09	[청주] 충북문화관 북카페서 12일 '원데이 페스티벌'
뉴스1	2013. 07. 02	[고양] 국립암센터 12일 '원 데이 페스티벌' 개최
	2013. 07. 05	[서울] 강북구, 12일 하우스 콘서트 개최
	2013. 07. 06	[부산]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더 하우스 콘서트' 연다
	2013. 07. 10	[청주] 원데이페스티벌... '벨루스 카르넷' 공연
	2013. 07. 12	[울산] 울주문화회관 하우스콘서트 '브라스마켓'과 함께
	2013. 07. 12	[구미] 구미역 12일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
뉴스1	2013. 07. 03	[대전·충남] 당진시, 다양한 공연·전시와 함께하는 7월
	2013. 07. 10	[강릉] 강릉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메이세컨' 콘서트
	2013. 07. 10	[충북 세종] 재천숏대문화공간에서 12일, 하우스콘서트
아시아뉴스통신	2013. 06. 26	[경남] 오보에와 피아노의 선율속으로, 하우스콘서트 함안 공연
	2013. 07. 08	[전북] One Day Festival - 비올라 가영 & 피아노 히로히다에
	2013. 07. 10	[충북] 2013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플러스코리아	2013. 07. 06	[서울] 강북구, 하우스 콘서트 개최
	2013. 07. 10	[김제] 2013 하우스콘서트 전국 공연 프로젝트
제주의소리	2013. 06. 24	제주 중산간으로, 바닷가 마을로 흘러들 '진짜 음악'
동영인터넷뉴스	2013. 06. 26	내달 12일 피아니스트 '장성' 콘서트 열려
플레이뉴스	2013. 06. 27	더하우스콘서트, 7월 12일 전국 동시다발적 하우스콘서트 원 데이 페스티벌 개최
뉴스컬처	2013. 07. 01	전국 마룻바닥을 1시간 동안 울려라, 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
조은뉴스	2013. 07. 02	2013 하우스 콘서트 '나M 초청 Free Concert' 오는 12일 개최!
스타트뉴스	2013. 07. 02	2013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충청탐뉴스	2013. 07. 02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청양 개최
뉴스쉐어	2013. 07. 04	서울시 강북구, 강북예술회관서 하우스 콘서트 개최
헤럴드경제	2013. 07. 05	강북구, 하우스콘서트 개최
아시아경제	2013. 07. 05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하우스 콘서트
서울포스트	2013. 07. 06	2013 하우스콘서트 공연장 습격작전 One Day Festival
스포츠투데이	2013. 07. 06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하우스 콘서트
시사제주	2013. 07. 08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되는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제주의소리	2013. 07. 09	놀기가 바른 한 여름 제주 "초대합니다"
뉴스21	2013. 07. 10	2013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충북넷	2013. 07. 10	재천숏대문화공간 12일, 하우스콘서트
서울특목	2013. 07. 11	내 집이 콘서트장이 된다!
IPN뉴스	2013. 07. 11	재즈 선율 느껴봐요
제이칸뉴스	2013. 07. 11	강북구, 하우스콘서트 개최
인친in	2013. 07. 15	여섯 남자의 유쾌한 하모니

주간지·월간지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2013. 05. 06	하나 된 예술가와 관객 공연문화 새 지평 연다
주간경향	2013. 07	[문화칼럼] 2013 One Day Festival
가톨릭신문	2013. 07. 21	수원교구 양지분당 하우스 콘서트
월간 예향	2013. 7월호	'하우스콘서트'로 세상에 음악 뿌리는 작곡가 박창수
월간암	2013. 7월호	국립암센터에서의 원 데이 페스티벌

방송				
매체명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SBS	TV	SBS 8시 뉴스	2013. 07. 05 8pm	페스티벌 소개 및 예술감독 인터뷰
MBC	TV	MBC 뉴스투데이	2013. 07. 15 6am	페스티벌 현장 취재
YTN	TV	YTN TV 뉴스	2013. 07. 16	페스티벌 현장 취재
국악FM방송	Radio	꿈꾸는 아리랑	2013. 04. 30 5pm	공연실황 100중 음반 소개 및 페스티벌 소개
전주 MBC	TV	MBC 뉴스투데이	2013. 07. 11 6am	페스티벌 소개
경남 MBC	Radio	좋은아침	2013. 07. 12 8:30am	페스티벌 소개 및 예술감독 인터뷰
광주 MBC	TV	생방송 행복충전 금요일	2013. 07. 12 6pm	페스티벌 현장 취재
청주 KBS	TV	문화현장	2013. 07. 17 10:50pm	페스티벌 현장 취재
청주 MBC	TV	문화매거진 <마실>	2013. 07. 20 8am	페스티벌 현장 취재



65개 공연장 동시 습격 작전

하우스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
7월 12일 7시 30분 동시 개최

-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클래식·재즈·국악·실험예술 연주자 290여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콘서트를 갖는다. 전국 38개 시·군 65개 장소에서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 '원데이 페스티벌'. 2002년 7월 서울 연희동 가정집 거실에서 음악회를 시작한 피아니스트 박창수(49)씨의 '몽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그는 연희동을 거쳐 2008년 중곡동, 2009년 역삼동에 이어 2010년부터 도곡동 녹음스튜디오 올에서 하우스 콘서트만 350회 넘게 열었다. 으리으리한 콘서트홀보다 집 거실에서 마룻바닥을 울리는 악기의 진동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음악 감상의 매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저명 피아니스트 외르크 데무스, 김선욱·조성진(피아노) 등 1500명이 넘는 연주자가 이 무대를 찾았고, 최근 이 공연을 녹음한 상황을만 100종까지 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여는 하우스 콘서트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7월 하우스 콘서트 10주년을 맞아 전국 23개 공연장에서 1주일간 콘서트를 100개 여는 '하우스 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사건'을 기획했다.

공연장만 달랑 지어놓고 콘텐츠는 없는 지역 문화예술회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였다. 강은일(해금) 김태형(피아노) 강산애(대중음악) 김가은(재즈) 등 58개팀 연주자 158명이 참여했고, 관객들은 '하우스 콘서트'처럼 객석 대신 무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주저앉아 음악을 듣는 진귀한 체험을 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하루에 공연 100개를 올리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회관 중 17개만 참여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소극장, 아틀리에, 학교, 군부대, 가정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다는 게 작년과 다르다. 이경선(바이올린) 서울대 교수, 정록기(바리톤) 한양대 교수, 성민제·성미경(더블베이스) 남매, 서울시향 첼로 수석 주연선과 재즈 연주자 강태환, 전위예술가 무세중, 인디밴드인 황신혜 밴드 등 290여명이 최소한의 개런티만 받고 나선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기업 협찬 없이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를 받아 콘서트를 올린다. 티켓은 공연장에 따라 1000원~1만원.

(02)576-7061, www.thc-project.com

(2013. 6. 27 조선일보 기사 전문)

같은 시간, 다른 공간... 65개 팀 '별난 무대'

내달 12일 오후 7시 30분
'원 데이 페스티벌'

- 문화일보 신세미 기자

더블베이스 연주자 남매인 성민제·미경 씨는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과천 시민회관 무대에서 2대의 더블베이스 음악회를 갖는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씨는 피아니스트 조수현 씨와 중남 당진 문예의 전당에, 바리톤 정록기·피아니스트 최사랑 씨는 전북 익산 리문화예술회관에 오른다.

클래식 연주자뿐 아니라 대중음악, 재즈, 국악, 실험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65개 팀이 동일한 일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표무대를 마련한다. 대중음악의 황신혜밴드는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재즈 연주자 강태환 씨는 서울 마포구 요기가 표현갤러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다. 한국 1세대 전위예술가 무세중 씨의 퍼포먼스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진행된다. 전국 38개 시·군의 문예회관과 대안공간 65개소에서 '2013 원 데이 페스티벌'이 같은 날 동시에 펼쳐진다. 클래식음악을 중심으로 국악, 실험예술 등의 무대가 문예회관을 비롯해 각 지역 소공연장, 학교, 군부대, 성당, 극장 및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가정집 8곳에서 펼쳐진다. 이날 290여 명의 연주자는 공연장별로 적게는 20~30명부터 많게는 100~2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동안 특화한 무대를 이끈다. 동일한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열리는 7월 12일 공연은 지난해 처음 시도된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기획자는 2002년 자신의 집서 마련한 소규모 음악회를 시작으로 11년여 '하우스 콘서트'란 이름의 작은 음악회를 이끌어온 음악가 박창수 씨. 그와 뜻 맞는 음악동료들은 각 지역 문예회관을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문화의 고른 발전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한달 동시다발의 무대를 시도한 것.

기획자 박창수 씨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00개 공연을 목표로 추진했다"며 "그러나 지방 문예회관의 참여가 저조해 문예예술회관은 17개소뿐 소극장과 대안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1주일간의 페스티벌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100개의 공연이 펼쳐진 반면, 올해는 단 하루뿐인 일정으로 전국 각지서 동시에 기획공연을 펼친다.

마룻바닥을 울리는 악기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 무대마루에 객석을 마련하는 이번 공연은 연주자와 관객의 교감을 중시하는 작은 음악회다. 문예회관 외에 서울 명지고교, 세종시 한솔중학교 등 각급 학교와, 용인 양지성당과 보령사 및 창원의 해군9전단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무대가 전개된다.

올해엔 서울 강남 김명조의 집을 비롯해 리코디스트 염은초의 용인 집 등 일반 가정집도 8개가 포함돼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음시 가정집은 70대 부부가 사는 정애자 씨의 집이며, 가정용 피아노로 피아니스트 정재원 씨의 독주회가 열린다. 또한 온가족이 악기를 연주하는 김해시 김주연 씨의 주유소 건물 2층 집에선 이날 성악가 장은녕, 박상진 씨의 노래(피아노 임소영)가 울려 퍼진다. 이밖에 구미역의 경우 목포지역 연주자들로인 포르테 브라스 쿼테트의 무대가 열리고, 서귀포 본태박물관에서는 현악4중주 카메라타제주가 공연하는 등 지역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입장료가 공연별로 무료 혹은 1000~2만 원선이다.

(2013. 6. 26 문화일보 기사 전문)

2500만원(문화예술위 지원금)으로 1만명 모은 '하우스콘서트'

-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구두 속까지 장맛비가 파고들던 지난 주말 저녁,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카페 빌딩 4층에서 굵직한 저음의 현(絃)이 피아노와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헬리스트 주위에 웅기증기 둘러앉은 관객 30여명은 20대가 대부분이었다. 연주자는 서울시향 첼로 수석 주연선(33).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의 진지한 소나타에 이어 차이콥스키 로망스까지 앙코르로 안겼다.

연주 후 주연선은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창고를 임시변통한 허름한 '대기실'에서 샌드위치로 요기를 했다. 주로 예술의전당 같은 곳에서 연주해온 주연선이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같은 시각, 북촌의 한옥에선 성남시립국악단 수석 윤운자의 거문고 산조가, 제주 서귀포의 복합문화공간에선 헬리스트 문웅희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흘러나왔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같은 공연장 17곳, 단독주택·아파트 등 가정집 8곳, 사찰·교회·성당, 학교, 군부대 등 전국 65곳에서 동시에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2002년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 거실서 음악회를 시작한 피아니스트 박창수(49)의 '하우스 콘서트'가 전국으로 무대를 넓힌 '원데이 페스티벌'.

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2500만원과 소액 기부금을 합해, 단 9000만원으로 전국 65곳에서 1만명 관객을 불러들였다.

2년에 한 번꼴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 조사에 따르면, 클래식 연주회를 보러 가지 않는 이유로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 2위를 다툰다. 하지만 지난날 인기 상층가의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한 부산시향 관람료는 5000~1만원이었다. 대부분 지방 교향악단 티켓 값은 영화 관람료보다 싸다. "돈이 없어서 연주회에 못 간다"는 답변이 꼭 진실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대중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평일 저녁, "음악 듣고 싶으면 콘서트홀로 찾아오라"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클래식 팬은 좀처럼 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의 하우스콘서트에 꼭 왔어야 하는 손님은 교향악단과 예술단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 관계자들이었다.

(2013. 7. 15 조선일보 기사 전문)

연주자 숨소리까지 생생... '찾아가는' 하우스콘서트

주말 전국 65곳서 '원데이 페스티벌'

- 한겨레신문 정상영 선임기자

장맛비가 지루하게 내리던 12일 저녁,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 두 더블베이스가 연주하는 바흐의 <프렐류드 모음곡 제1번>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연주장이 아닌 다목적홀, 그리고 객석이 아닌 무대 바닥에 걸터앉은 관객들은 '천재 남매 연주자'로 유명한 성민제(23), 성미경(20)씨가 연주하는 더블베이스의 저음에 빠져들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는 연주가 신기한 듯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담기에 바빴다. 또 개구쟁이 꼬마들은 신나는 곡이 연주되면 박수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두 연주자는 1시간 동안 무대를 가득 채운 200여명의 관객 앞에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과 쇼팽의 <녹턴, 작품9>,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을 들려주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관객들이 소리 높여 "앙코르"를 외쳐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평소 즐겨 연주하는 슈퍼거의 <2대의 베이스를 위한 듀오>로 답례했다. 연주가 끝난 뒤에는 팬 사인회도 이어졌다.

연주회를 지켜본 과천 시민 안홍욱(50)·이은영(48)씨 부부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을 더블베이스로 들으니 느낌이 신선하고 풍부했다. 또 객석이 아닌 무대에 앉아서 들으니까 음악이 더 가까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시현(12·인덕원초 6)양은 "음악가가 꿈인 사람은 이런 연주를 들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성민제씨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다. 간혹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지만 오히려 그게 편했다"고 털어놓았다. 성미경씨도 "관객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열린 음악회는 8번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편안하게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은 '무대 마룻바닥 연주회'가 과천을 비롯해 전국 38개 시·군 65개 문예회관 및 대안공간에서 한꺼번에 펼쳐졌다.

2002년 7월12일 음악가 박창수씨의 자택에서 출발해 새로운 '공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하우스콘서트'가 이날 저녁 7시30분을 기해 1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연주하는 '원데이 페스티벌'을 펼친 것. 클래식, 재즈, 국악, 실험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 290여명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참여한 연주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하우스콘서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12월 말까지 전국 30여개 시군의 문예회관에서 다달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무료이거나 1만원 미만의 티켓 값으로 쉽게 공연장을 찾아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룻바닥을 울리는 악기 소리의 질감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크다. 또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에게는 관객의 호응과 시선을, 관객에게는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와 땀방울 하나까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매력도 있다. 차후로는 지방의 소극장이나 가정집, 북카페, 사찰, 성당, 교회, 보육원 등 평범한 공간들로 확산할 방침이다. 원데이 페스티벌을 기획한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대표는 "연주장의 문턱을 낮추고 기초문화를 다지자는 의미로 행사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하우스콘서트가 확산되고 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기초예술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www.thc-project.com, (02)576-7061.

(2013. 7. 15 한겨레신문 기사 전문)



One Day Festival
2013. 7. 12

